

# 트럼프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고대”

## 北 신년사 화답... 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남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PBS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남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PBS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첫 반응으로, 긍정적인 화답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새 길’을 거론하며 경고한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나는 앞

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 필리핀 홍수·산사태

### 85명 숨지고 20명 실종

최근 필리핀을 동서로 관통한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 (Usman)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희생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콰이어라 등 현지 언론은 2일 재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6시 현재 오스만의 여파로 85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부상자 수도 40명으로 파악됐다. 오스만은 지난해 12월 29일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의 사마르섬으로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쏟아져 산악지대인 비콜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컸다.

애초 한 자릿수였던 희생자는 비가 어느 정도 그치고 구조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재난 당국은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2만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9만1천여명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필리핀 카마리네스 수르 주에 있는 마을에서 한 주민이 겨울철 열대 폭풍이 뿌린 폭우로 물에 잠긴 거리를 소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이 최근 필리핀 중부를 동서로 관통하면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56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중국 인구 올해 14억명 돌파 5년후 2024년 인도에 역전

중국 인구가 올해 14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는 10년후 정점을 맞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5년후인 2024년에는 최대 인구 국가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17년 말 13억9천800만명 이었다. 중국 인구는 최근 수년간 매년 700만명 정도씩 늘고 있어 작년 출생자와 올해 출생자 수를 고려하면 올해 중 14억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앞으로도 증가를 계속하지만 2024년에는 인도에 역전당해 최대 인구국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2029년에 14억 4157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 새해 막오른 美 민주당 대선 레이스...30여명 준비

### 워런 상원의원 출마 선언

### 역대 최대 역동적 경쟁 예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대선 예비선대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30명 이상이 대선 레이스 경쟁에 나설 것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없이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치러진 대선 레이스 중 가장 유동적인 대선 후보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2020년 대선에서 다수

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대선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다만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워런 상원의원의 출마 선언에 이어 뉴저지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수주 내에 대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런 상원의원은 조기 출마 선언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아메리칸 원주민 혈통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해 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다.

또한 대선 출마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대선 예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명 인사가 많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같은 유력 인

사 중 한명이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텍사스의 베토 오루어크 하원의원은 지난 중간선거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인사가 대선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출마 문제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거나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수많은 인사 가운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현지 언론들은 진단했다.

대선에서 ‘타이밍’은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 이슈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620km 인간띠

### 인도 여성 수백만명 “힌두사원 출입 허용하라” 시위

인도 여성 수백만 명이 종교 관련 양성평등을 요구하며 620km 길이의 인간띠를 엮었다.

2일 PTI통신 등 인도 언론과 외신은 지난 1일 오후 남부 케랄라 주(州)에서 여성 수백만 명이 인간띠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주 전역에서 모인 여성들은 케랄라 북부 도시 카사라고드부터 남부 티루바난타푸람까지 620km 길이의 도로에서 어깨를 맞대며 길게 늘어섰다. 주최 측은 BBC방송에 500만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여성들은 케랄라의 한 유명 힌두사원 출입과 관련해 양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 대법원은 10세부터 50세까지 여성의 출입을 금지한 사바리말라 사원의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원은 생리가 가능한 가임기 여성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왔다.

생리 중인 여성의 출입만 막는 인도 상당수 힌두사원과 달리 사원의 신성성수호 명목으로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엄격한 ‘종교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사바리말라 사원은 힌두교 생육의 신인 아이야만을 모시는 곳으로 해마다 2천만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찾는다.

여성들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원 출입을 시도했으나 승려와 보수 신도들이 극렬하게 막은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 힌두교도들은 여성 신도와 기지를 폭행하고 수천 명이 모여 시위까지 벌였다.

이번 인간띠 시위에 참여한 카비타다스는 BBC방송에 기도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사원에서 기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中훈춘서 공공 언 두만강 건너 北 관광

새해 첫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이 접해있는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걸어서 두만강을 건너 뒤 북한을 관광했다.

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1일 훈춘 광천풍경구에서 열린 ‘북중 두만강 수상 관광통로 개최식’ 이후 100여명의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로와 항공 등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훈춘을 거쳐 러시아나 북한을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상으로 북한에 가는 통로도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신문망은 이날 관광객들이 얼음이 언 두만강을 걸어서 건너 북한 나선시에 도착했다면서, 여름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하루 일정의 프로그램으로 북·러 우의각(友誼閣) 등 관광지를 둘러본 뒤 오후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행사에 참석한 가오위룡(高玉龍) 훈춘시위원회 서기는 “개방에 있어, 적극적으로 러시아-북한과 이러한 지역협력 추진하겠다”면서 “또 두만강을 둘러싸고 북한 나선 무역구와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러한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를 만드는 동시에 북중간 사투쯔(沙土子) 국제경제합작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중러 영토와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천풍경구에서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사도 했다.

/연합뉴스

## 랜딩기에 숨었다 잠든 캄보디아 남성 이륙후 추락사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랜딩기어(착륙장치)에 몰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비행기 이륙 직후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일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한 직후 남성 1명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후 공항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이 전날 밤 공항 계류장에 있는 비행기 사이를 다니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또 공항 철조망 일부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남성이 공항에 몰려 들어와 비행기 랜딩기어 안쪽에 숨은 뒤 잠이 드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함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